

日 NHK, 동방신기 '제60회 홍백가합전' 2회연속 출연 공식발표

입력 2009. 11. 23. 16:09 · 수정 2009. 11. 23. 16:09





第60回NHK紅白歌合戦 出場歌手決まる!!

大晦日恒例の「第60回NHK紅白歌合戦」(平成21年12月31日(木)午後7時15分~11時45分【8時55分から9時まで5分間のニュース中断あり】総合・衛星ハイビジョン・衛星第2、ラジオ第1)の出場歌手が決定しました。

出場歌手は、紅白合わせて50組。

初出場は紅組が2組、白組が6組の、合わせて8組。

これまでの対戦成績は、昨年(白組)の勝利で、紅組26勝、白組31勝。

紅組

白組

aiko	(18)	嵐	(10)
秋元順子	(2)	アリス	(3)
絢香	(4)	五木ひろし	(39)
アンジェラ・アキ	(4)	EXILE	(5)
いきものがかり	(2)	NYC boys	(8)
石川さゆり	(32)	北島三郎	(46)
AKB48	(2)	北山たけし	(5)
大塚愛	(6)	コブクロ	(5)
GIRL NEXT DOOR	(2)	ジェロ	(2)
川中美幸	(22)	SMAP	(17)
木村カエラ	(1)	東方神起	(2)

[뉴스엔 차연 기자] 일부 멤버와 소속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가 일본 최대 음악축제인 NHK 제60회 '홍백가합전'에 2008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출연한다.

NHK는 23일 '홍백가합전'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31일 생방송에 출연할 가수들을 공식 발표했다. 홍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일본 정상급 가수 60팀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동방신기는 백팀에 이름을 올리며 일본 최고 아이돌 스마프(SMAP), 아라시(嵐) 등과 한 팀을 이루게 됐다.

동방신기는 올해 일본에서 아시아 가수로서 공연DVD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으며 도쿄돔 공연을 성사시키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현지 가수들과 견줘도 올해 가장 인기있었던 가수에 꼽힐 정도다. 하마사키 아유미 등 톱스타들이 팬임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11월 26일 니혼TV '베스트히트가요제2009'와 12월 2일 후지TV 'FNS가요제'에도 출연하며 지난 8월 에이네이션 오사카 공연 이후 처음으로 5인조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선다.

앞서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 3인은 지난 7월, 13년 전속 계약에 대해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뜻을 담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SM은 서로 합의하에 갱신해 온 합당한 계약이라는 입장을 표명,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0월 27일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세 멤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SM 측이 3인에게 "11월 12일까지 돌아오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합의가 결렬, "결국 해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사진=동방신기(위), NHK '홍백가합전' 홈페이지 캡처)차연 sunshine@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